

논단 2

에코뮤지엄에 기반한 한국어촌민속마을의 조성 방안¹⁾

충남연구원 정지은 책임연구원

02

1)정지은,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2017)”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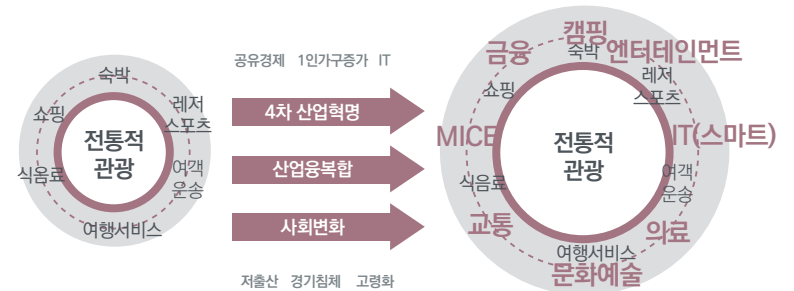
#1

국내외 관광 트렌드의 변화

과거에 비해 관광 참여의 총량이 늘어나고 관광시장이 확대되면서 관광 산업은 내용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관광의 형태가 패키지관광 위주의 단체관광에서 개별 관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다양한 욕구를 지닌 관광객들은 역사 유적, 자연경관 등 전통적인 관광 요소 이외에도 개별적인 맛집, 주거지역, 사진명소 등 지역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을 원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현지 체험, 라이프 스타일 관광 등 일상의 영역에서 정주하며, 지역주민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 지역문화를 진정성 있게 경험하고자 하는 형태의 관광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관광의 영역 확장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 관광정책토론회 ‘관광을 키우다, 관광을 바꾸다’ 자료집.

최근 우리나라의 관광정책은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관광 격차 심화를 해소하려는 ‘국내관광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관광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해외관광은 증가추세이나 국내 관광은 정체상태이며, 외래 관광객들의 여행 지역도 서울(78.7%), 제주(18.3%), 경기(13.3%), 부산(10.3%) 등으로 편중되어 있어 관광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기여가 미약한 상태이다.

국내여행의 목적을 살펴보면, ‘여가·위락·휴가(45.6%, 2015년 기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높은 여행 유형으로 ‘자연경관’, ‘문화유산’ 등을 꼽을 수 있다.

[표 1] 관광여행 유형에 따른 만족도 (단위: 점)

구분	가구여행			개인여행		
	2015년	2014년	2013년	2015년	2014년	2013년
자연경관	4.14	4.15	4.20	4.12	4.13	4.20
문화유산	4.04	3.99	3.97	3.97	3.95	4.03
교통	3.98	3.91	3.87	3.94	3.92	3.88
숙박시설	4.04	3.98	4.00	3.93	3.91	3.89
식당 및 음식	3.88	3.87	3.82	3.88	3.87	3.81
쇼핑	3.79	3.76	3.74	3.78	3.78	3.78
안내시설	3.92	3.91	3.88	3.88	3.86	3.90
편의시설	3.92	3.91	3.87	3.89	3.88	3.86
체험프로그램	3.90	3.90	3.85	3.87	3.86	3.83

주: 5점 만점 기준임(① 매우 불만족한다 또는 매우 낮다, ③ 보통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또는 매우 높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국민여행실태조사.

이에 따라 현재 지역이 지닌 독특한 역사문화적, 자연환경적 정체성을 드러낸 관광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역의 장소와 유산을 함께 보전하는 에코뮤지엄의 관광지들이 주목받고 있다.

#2

에코뮤지엄의 개념과 특성

에코뮤지엄은 1973년 프랑스의 학자인 앙리 비리에르(Georges Henry Riviée)가 인간·자연·지역유산을 결합해 만든 개념으로, 생태를 의미하는 에콜로지(ecology)와 박물관(museum)의 합성어이다(장세길, 2013).

전통박물관은 건물을 전제로 소장품을 보관하는 곳인 반면, 에코뮤지엄은 한정된 지역의 범위 안에서 유산·주민·자연·문화자원 등으로 구성되는 모든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 박물관에 비해 에코뮤지엄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인이며, 그들 스스로 지역의 유산을 발굴·조사·연구·기획·실행하면서 지역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르네리바르 René Rivard)

[표 2] 리바르(René Rivard)의 전통적 박물관과 에코뮤지엄의 비교

구분	장소/공간적 범주	내용/대상	사람/주체
전통적 박물관	박물관의 건물	수집품(대상유물)	전문가, 공중
에코뮤지엄	영역	유산, 기억	지역 주민

자료: 정수화·이병민(2016), 에코뮤지엄의 속성을 통해 본 도시의 문화적 지속가능성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23, p.176.

에코뮤지엄의 구성요소는 박물관의 활동(museum), 지역의 문화적 유산(heritage), 주민의 참여(participation)로 꼽을 수 있다. 에코뮤지엄은 궁극적으로 지역 전체를 뮤지엄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가치 지향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며, 에코뮤지엄은 특정한 물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동시에 문화적 실행 주체이자 매개자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확장된 의미에서의 뮤지엄은 대상이 되는 지역(마을) 혹은 도시 자체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시설과 규모 위주의 관광지 개발 및 유지에는 자본이 필요한 반면, 지역의 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점과 외부 자본이 유입되더라도 이익 또한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발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내발적 발전 즉, 지역 내 자원 혹은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이 지역 발전을 더욱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에코뮤지엄의 소재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은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에코뮤지엄은 지역 발전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3

에코뮤지엄의 사례 : 일본 오키나와 다케토미(竹富島) 민속마을

다케토미 민속마을은 일본 오키나와현의 다케토미섬에 위치한 약 5.42만m² 규모의 민속마을로, 하얀 모래와 빨간 지붕, 잿빛돌담, 물소 등 옛 류큐(琉球)왕국 시절 오키나와 전통마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공민관이라는 주민 자치 기구이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다케토미섬은 오키나와현의 3번째로 큰 섬인 이시가키섬에서 약 6km 떨어져 페리로 약 10분 거리에 있으며, 연평균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실제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이지만 1972년 일본 문화성에 의해 마을의 행사가 중요민속무형문화재로 지정 되었고, 1987년에는 일본의 중요 전통건축물 보존지구(중전건, 重傳健)로 지정되어 현재는 어디서도 현대식 건물을 찾아볼 수 없다. 다케토미 민속마을의 내부에 있는 호시노야 오키나와는 고급 료칸을 운영하는 일본의 리조트그룹에 의해 7년간 건축된 것으로, 다케토미섬의 전통 가옥 형식을 따라 고급스러운 독채형 객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섬의 특별 건축 규정에 따라 주택의

배치 및 담의 높이, 지붕의 기울기까지 매뉴얼에 따라 건축되었다.

다케토미 민속마을의 대표 프로그램은 민속마을 둘러보기(도보, 자전거 대여, 관광용 물소달구), 비지터센터(동영상, 자료열람, 전시 등의 프로그램 제공), 다네도리사이(種子取祭) 등이 있다. 다네도리사이는 다케토미 민속마을에서 9일간 펼쳐지는 ‘길일의 파종·성장·수확’의 이상적인 과정을 옮겨나 노래하는 예측의례로, 민속문화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아 1972년 국가의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받았다(김희영, 2017). 현재 다네도리사이 기간에 다케토미를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전파되면서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마을의 의례로 지속되고 있다.

[그림 2] 다케토미 민속마을의 전경 및 호시노야 오키나와



자료: 조선일보 홈페이지(http://boomup.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20/2013042000425.html?Dep0=twitter), 호텔온센닷컴 블로그(<http://blog.naver.com/hotelonsen?Redirect=Log&logNo=220868971574>), 다케토미 민속마을 홈페이지(<http://www.town.taketomi.lg.jp>).

#4

에코뮤지엄에 기반한 한국어촌민속마을의 조성

급속한 어민의 고령화 및 소규모 어촌의 폐촌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어촌모습 보전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표적인 어촌의 역사와 생태관광, 민속, 문화 자원의 발굴을 위한 한국 최초의 어

촌민속마을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정지은, 2017).

특히 충남의 서해안에는 잠재적인 자연(수산물, 생태자원, 지형, 자연경관 등) 및 문화(전통풍습, 전통가옥, 음식문화 등) 자원이 보전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 에코뮤지엄 형태의 한국어촌민속마을이 조성된다면 국내외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어촌민속마을의 조성은 인간을 포함, 한국의 어촌·생태·문화(민속) 등을 모두 아우르는 특정 지역을 뮤지엄의 범위로 설정하고,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에코뮤지엄의 구성요인인 박물관의 활동(museum), 지역의 문화적 유산(heritage), 주민의 참여(participation)로 이루어질 수 있다.

참고문헌

김희영(2017), 다케토미지마(竹富島) 다네도리사이(種子取祭)의 현행 양상 및 의례로서의 지속성.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년 국민여행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7), 관광정책토론회 ‘관광을 키우다, 관광을 바꾸다’ 자료집

장세길(2013), 농어업유산, 유산관광 그리고 에코뮤지엄.

정수희·이병민(2016), 에코뮤지엄의 속성을 통해 본 도시의 문화적 지속가능성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23.

정지은(2017), 차별화된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 열린충남 여름호, Vol. 79.

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boomup.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20/2013042000425.html?Dep0=twitter

호텔온센닷컴 블로그 <http://blog.naver.com/hotelonsen?Redirect=Log&logNo=220868971574>

다케토미 민속마을 홈페이지 <http://www.town.taketomi.lg.jp>